

동물 친구들의 탈출 대소동



글 황선아, 그림 박하림

오늘은 동물 친구들이 놀이동산으로 소풍 가는 날이에요.

“우와! 신나다!!”

떨리는 마음으로 고양이, 토끼, 사자, 하마는 노란 버스를 탔어요.



차에 탄 토끼와 고양이는 안전벨트를 맸어요.



차를 타고 가다 보니
사자와 하마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.

토끼와 고양이도 덩달아
잠이 들어버렸어요.

그르렁 그르렁

스르르



친구들은 깜빡 잠이 들었어요.
어느 새 버스는 놀이동산에 도착하여
친구들은 모두 내리고 버스 문은 닫혔어요. 쿵!

zzzz





Zzz

! 앓 깜짝이야!

잠에 빠진 고양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어요.
“어? 여기가 어디지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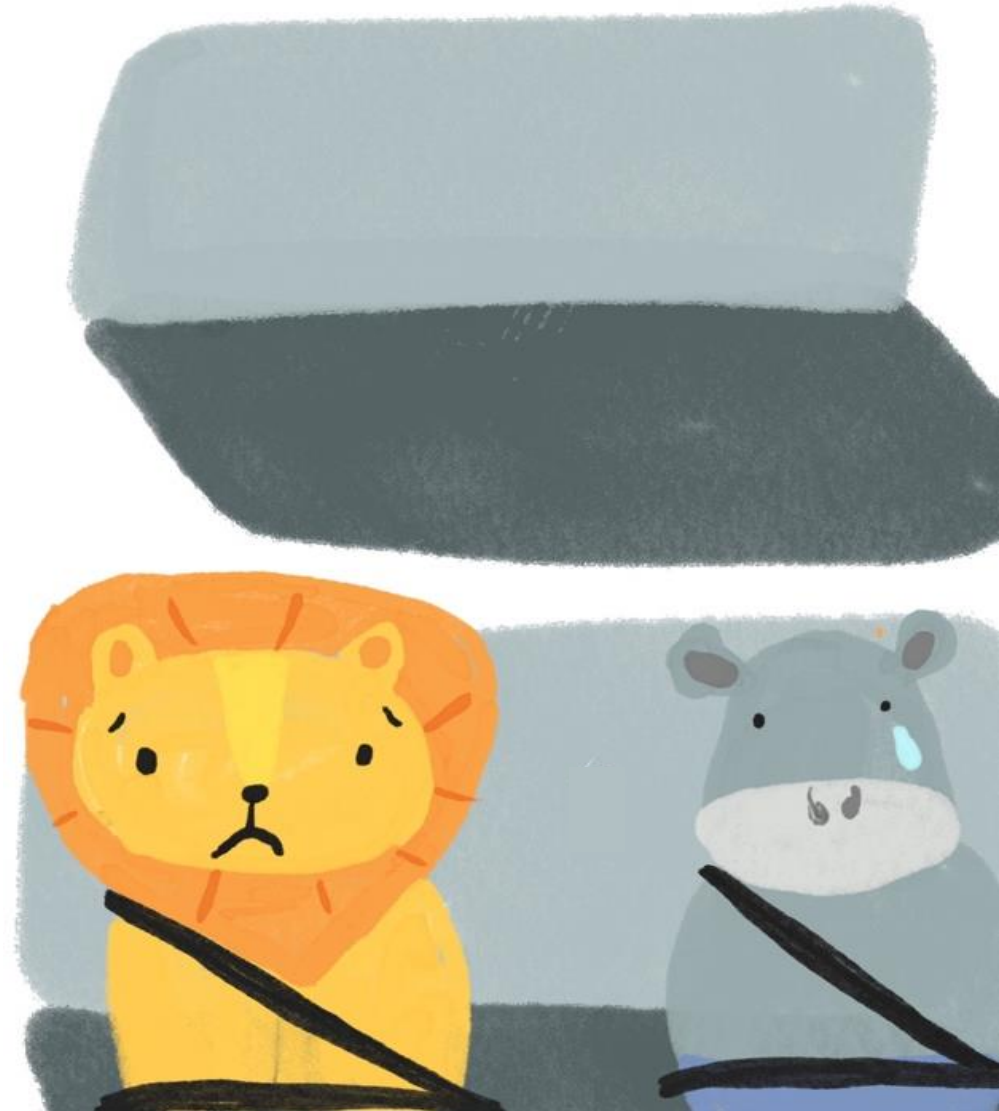
잠에서 깬 고양이 친구들을 깨웠어요.

겁먹은 토끼는 빨간 눈이 커지고,
고양이는 두리번 두리번
하마는 눈물이 찼끔 났답니다.



그때 사자가 말했어요.

**“내가 크게 소리 쳐 볼게!
내 목소리는 엄청 크니까 사람들이 도와 줄 거야.”**



사자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.



큰 소리로 계속 외쳤지만
사자의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.

‘털썩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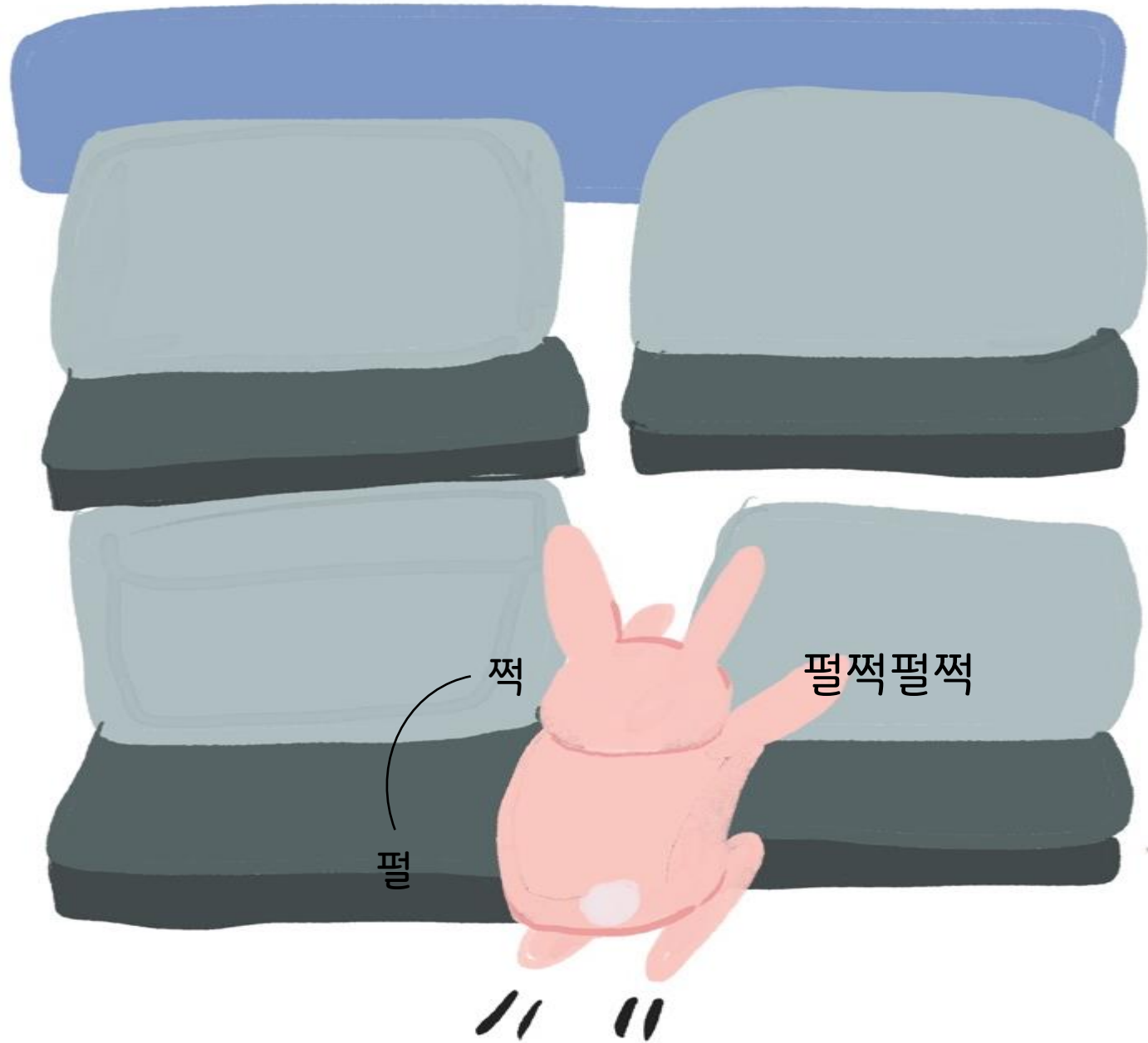
"아무도 안 들리나봐."

사자는 슬펐어요.



“사자야 슬퍼하지마.
이번엔 내가 펄쩍 뛰어 볼게!”

높이뛰기를 잘하는 토끼는 버스 안에서
‘펄쩍펄쩍’ 뛰기 시작했어요!



토끼가 힘차게 뛰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.

“토끼야 이번엔 내가 해 볼게.”

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고양이는 창문을 ‘빠지직’ 긁었어요.



고양이가 힘을 내 창문을 긁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.

점 점 점 점



사자는 '어흥' 큰소리를 치고
토끼는 힘차게 '펼쩍' 뛰고
고양이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'빠지직' 창문을 긁었지만
동물친구들이 버스에 남은 걸 아무도 몰랐어요.





“어... 어떡해...”

아무도 오지 않자
하마는 겁먹으며
뒷걸음 치기 시작했어요.

뒷걸음 치던 하마는
운전대에 엉덩이가 부딪혔어요!

뽀앙~~~~!

뽀앙뽀앙!





빠앙~~~~!

뽕뽕!



앗 깜짝이야



버스 경적 소리를 들은 부엉이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!

“이게 무슨 소리야?”


부엉이 아저씨는 버스로 달려갔어요.

부엉이 아저씨는 동물 친구들을 보고 버스 문을 열었어요.





“차에 갇혀 많이 놀랐지~

차에 갇혀도 겁 내지 말고 운전대에 있는
 을 **엉덩이로 꼭~** 누르면 돼.

그럼 누군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올 거야!”



네~